

안세영 “이번달 복귀… 올림픽 꿈 향해 달릴 것”



안세영

“부상 회복 상태 좋아졌다 방송·광고 사양, 운동에 집중 14일 일본대회부터 출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부상 투혼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이달 실전에 복귀한다.

안세영은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의 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나 “아시안게임 이후 재활에만 집중하며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에 앞장섰고, 여자 단식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8월 세계 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에 이어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확실히 알렸다.

지난달 7일 열린 천위페이(중국)와의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전에선 첫 경기 접전 도중 무릎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나고도 기적 같은 승리를 따내 한국 선수로는 29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했다.

투혼의 금메달 이후 검진 결과 무릎 근처 힘줄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안세영은 재활에만 몰두해 왔다.

그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재활하면서 힘이 많이 붙어서 이전보다도 좋아진 것 같다”면서 “아직은 50~60%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전에 맞춰 차차 100%까지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출전하려고 한다. 그 대회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 국제대회를 좀 더 뽐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세영의 복귀전은 11월 14일부터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구마모토 마스터스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이 자리를 비운 동안 최근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선 천위페이가 연이어 우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세영은 “(출전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제 몸이 먼지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갈 길도 매우 힘들 거라고 예상하기에 조금 해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이후 각종 방송이나 광고의 ‘섭외 1순위’로 떠올랐으나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

예인이 된 게 아니다”라며 모든 요청을 사양하는 소신으로도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많은 경기가 있고, 아직 못다 이룬 꿈도 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 출연 등을 병행하기엔 벅해서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제 몸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안게임 우승도 했지만, 아직 올림픽(금메달)도 없기에 올림픽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한다. 선수로서 보여드려야 할 것이 많기에 제가 하는 배드민턴에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금메달 이후엔 방송 출연 등에 응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엔 “많은 분이 저를 원하신다면 여유가 생겼을 땐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만약은 만약 일 뿐’이니까 지금은 하루하루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그는 ‘투혼상’을 받았다.

안세영은 “지금까지 아주 힘들게 달려왔지만, 제 머릿속엔 올림픽을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뿐이다. 그렇게 하면 올림픽까지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올림픽에 임하도록 잘 준비하며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지난 3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여덟 번째 발롱도르를 받았다. 왼쪽부터 처음 발롱도르를 받은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9년, 2021년, 올해까지 우승배를 들고 있는 메시의 모습. /연합뉴스

‘GOAT 메시’ 8 발롱도르

〈역사상 최고 선수〉

월드컵 우승 숙원 이뤄 홀란·음바페 누르고 8번째 황금공 차지 김민재 22위… 전 세계 수비수 중 1위·아시아 수비수 중 첫 후보

월드컵 우승의 숙원을 이룬 리오넬 메시(36·인터 마이애미)가 여덟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리오넬 메시는 지난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메시는 전 세계 100명의 기자단 투표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의 ‘괴물 골잡이’ 앨링 홀란, 파리 생제르맹(PSG) 동료였던 킬리안 음바페 등을 제치고 한해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이 상을 거머쥐었다.

메시가 발롱도르를 받은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며, 생애 여덟 번째(2009·2010·2011·2012·2015·2019·2021·2023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5회·알나스르)를 제치고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메시는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카림 벤제마(알이티하드)가 발롱도르를 가져갈 때만 해도 30대 중반에 들어선 메시가 다시 이 상을 받을 일은 없을 거로 보였다.

메시의 프로 무대 활약상은 그다지 빛나지 않았다.

2022-2023시즌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팀의 11번째 리그 우승을 이뤄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는 16강 탈락했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

한 직후 팀에 리그스컵 우승 트로피를 안겼지만, 유럽 무대 밖에서 거둔 성과였다.

4전 5기 끝에 이뤄낸 월드컵 우승이 메시에게 여덟 번째 ‘황금공’을 가져다줬다.

메시는 지난해 11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며 ‘월드컵 우승 한’을 풀었다. 메시는 카타르에서 7골 3도움을 올리며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의 우승에 앞장섰다.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는 2골을 폭발했다.

한편 홀란은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UCL에서 모두 득점왕에 오르며 이 시대 최고의 골잡이로 발돋움했다. 기록상으로는 발롱도르 수상자로 충분히 보였지만 메시의 ‘드라마’를 앞섰지 못했다.

아시아 수비수로는 처음으로 발롱도르 후보로 오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투표에서 22위에 올랐다.

이는 아시아 선수 중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손흥민이 지난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11위에 올랐고, 2019년에는 22위에 자리했다.

여자 발롱도르는 올해 8월 열린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 우승에 앞장선 아이타나 본마티가 받았다. 본마티는 FC바르셀로나의 여자 챔피언스리그, 정구리그 우승에도 이바지했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오늘 중국 꺾으면 파리행 ‘성큼’

오후 8시 35분 B조 최종전 태국 꺾고 북한과 무승부 1위

이제 ‘만리장성’을 넘으면 파리까지 한 계단만 남는다.

풀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1일 오후 8시 35분(이하 한국시간) 중국 푸젠성의 사먼 이그렛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B조 최종전을 치른다.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며 예상 밖 선전을 펼치고 있다.

태국과 1차전에서 케이시 유진 페어와 천가람(KSPO)이 나란히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화력쇼’를 펼친 끝에 10-1 대승으로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이어 ‘최대 고비’로 여겨진 북한과 2차전에서는 탄탄한 수비로 0-0 무승부를 일궈내며 귀중한 승점 1을 챙겼다.

현재 한국(승점 4·골 득실 +9)은 북한(승점 4·골 득실 +1)과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

앞선 1위다. 북한에 이어 중국이 3위(승점 3·골 득실 +2), 태국이 최하위(승점 0·골 득실 -12)다.

한국은 중국전만 잘 넘기면 내년 2월 치러지는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12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2차 예선은 각 조 1위 팀, 그리고 2위 팀 중 성적이 좋은 한 팀이 4강 토너먼트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강전에서 승리한 두 팀 모두 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20위)은 중국(15위)보다 5계단 아래에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5승 7무 2패로 열세다. 최근 승리는 무려 8년 전 동아시아컵(1-0 승)에서 거둔 것이다. 이후 중국을 상대로 9경기(3무 6패) 연속 무승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 큰 격차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2월 인도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결승 맞대결에서 한국은 전반전 2골을 넣고도 2-3으로 아깝게 역전패해 준우승했다. 그해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동아시아컵에서는 중국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끝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태국전사들이 태국전에서 과시한 ‘막강 화력’, 그리고 북한전에서 보여준 탄실한 수비를 모두 보여준다면 중국전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

한국의 중국전 세부 전략은 앞서 오후 4시 30분 시작하는 북한-태국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승리한다면 한국은 중국에 반드시 승리해야 골득실을 가려 조 1위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과 비기면 북한에 이어 조 2위가 된다. A, C 조 2위 팀과 승점, 골득실 등 성적을 비교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진다면 조 3위로 내려앉아 곧바로 탈락한다.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북한이 태국과 비기다면 한국의 4강 진출 도전은 한결 쉬워진다. 한국은 중국과 비기지만 해도 골득실에서 북한에 앞서 조 1위로 4강에 오르게 된다.

한국이 중국에 지면 곧바로 탈락하게 되는 건 북한이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나 똑같다.

/연합뉴스

2034 월드컵 사우디 개최 유력…유치전 호주 철수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유치전에서 호주가 공식적으로 발을 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회 단독 개최가 유력해졌다.

호주축구협회는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컵 유치와 관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봤다. 모든 사안을 검토한 끝에 2034년 대회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과 2029년 FIFA 클럽 월드컵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본래 인도네시아 등과 공동으로 2034년 월드컵 유치에 나서 사우디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의 에리크 토히르 회장이 지난달 11일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인터뷰에서 호주와 논의 중이라 밝히면서 사우디에 맞서는 호주-인도네시아 연합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축구협회가 같은 달 18일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사우디 지지를 선언하면서 유치전 국면도 뒤바뀌었다.

결국 호주까지 공식 철수를 발표하면서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사우디가 낙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FIFA는 2034년 월드컵 유치에 관심이 있는 국

가들에 지난 31일까지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달 30일까지 자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고 주문했다.

현재 대회 개최 의향서를 FIFA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국가가 사우디다.

FIFA가 제시한 마감 전까지 추가로 유치 의향을 드러내는 곳이 없다면 사우디가 개최지로 확정된다.

사우디축구협회는 지난달 10일 의향서 제출을 알리며 70개 이상 FIFA 회원국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당초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2030년 월드컵 3대륙 공동 유치를 노렸으나, 경쟁에서 밀려 지난 6월 유치전에서 발을 뺐다.

사우디가 포기한 2030년 월드컵 개최지는 아프리카·유럽·남미 등 3개 대륙(모로코·스페인·포르투갈 공동 주최)으로 지달날 4일 결정됐다.

2026년 월드컵도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2034년 대회 개최 후보지가 북중미도, 유럽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아닌 아시아-오세아니아로 좁혀진 상태다.

경기를 치를 시설 요건이 중요해,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조별 리그를 치를 최소 4만석 규모의 경기장을 적어도 14개 갖춰야 한다. 이중 최소 7개는 기존 경기장이어야 한다. /연합뉴스